

2017년 5월 27일, 구좌읍 상도리 상도리노인회관, 이현정 조사.

제보자1: 오창은(남, 1936년생, 구좌읍 상도리)

제보자2: 강기주(남, 1937년생, 구좌읍 상도리)

- 줄거리: 구좌읍 상도리는 양촌마을이었으므로 바닷가 마을인 하도리에서는 물으로 시체가 올라오면 상도리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시체를 치우는 일을 귀찮게 생각한 상도리는 하도리 사람들에게 이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일렀고, 이를 계기로 상도리의 바다가 전부 하도리 차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제보자1] 상도에는 왜 바다가 없느냐고 한다. 원래는 상도에다가 바다가 잇는 걸로 되어 잇어요.

[조사자] 아, 기마씨?

[제보자1] 경 험디, 그, 옛날 그, 당시 이제 태풍이 요즘도 태풍이 좀 만혈 때는 태풍이 만험디. 아마 계속 태풍인 모양이라. 그러고 베도 거 목선? 뜯 거 허니까 많이 침몰될 거 아니에요. 거니까 하도에다가 사람 시체가 많이 올라오니까, 게니까 아마 상도에서가 아마 양반덜 높은 벼슬을 가진 분덜이 상도에다가 살아 잇었던 모양이야.

[제보자2] 많이 살아 부니까…….

[제보자1] 그래서 하도에 올라오면 하도에서 상도에다가

“시체가 올라왔습네다.”

해서 보고를 헛다고 헤여. 그러니까 상도서는 거 귀찮으니까,

“거, 너네 거, 알아서 너네가 치아라. 너네가 치워서 잘헛 헤라.”

허니까 이제, 하도선 이제 뭐, 거 보고허는 것도 엇어지곡. 그게 엇어져가지고 이제 상도에 바다가 엇어져 분 거야.

[조사자] 바당뱃이 다 넘어가 불엇구나예.

[제보자2] 응. 하도에 줍 부니까 그 영장도 줍곡 그래서,

“너희가 헤 먹어라.”

[제보자1] 그래서 상도에는 바다가 지금 없어요.

- 핵심어 : 상도리, 바다, 태풍, 목선, 하도리, 시체, 벼슬, 영장, 바당뱃